

“아름다운 한글 선을 활용해 작업했죠”



양형모의 공소남닷컴 ranbi@donga.com

자음과 모음을 예술로 만드는 작가 손일

자연 재료 '닥'과 훈민정음 컬러베이션을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형작품 4점 전시

서울 강남의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니 흰칠한 얼굴의 중년신사가 넉넉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원장 선생님이신가요 싶었는데 아니다. 바로 인터뷰의 주인공, 손일 작가(49).

경남 밀양 얼음골에 있는 작업실에서 인터뷰를 위해 당일 상경했다. 환자 대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돌아보니 곳곳에 미술작품이 걸려 있다. 모두 손일 작가의 작품들이다.

“원장님(김준영)께서 갤러리 공간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전시장소로 병원이 어떨지 생각해 주셔서...”

손 작가가 제안을 받아들여 이색적인 '병원 전시'가 성사됐다. 손 작가의 작품 25점이 1월부터 마음편한유외과에서 전시 중. 요즘 트렌드인 아



손일 작가와 닥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 '보내지 못한 편지', 윤종혁 PD yoom@donga.com

티스트와 기업간의 컬러베이션이다. 손 작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티브로 문자를 부조화해 소통에 대한 사유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석, 비문의 기록성에 관심을 두고 있던 중 2004년 간송미술관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만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국보로 지정된 훈민정음이었다.”

훈민정음 목판원본이 유실된 것을 안타까워하다 한글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손 작가는 “유럽에서 시작된 서양화 기법의 재료가 유희화물감이라면 내가 선택한 재료는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재료’는 닥이다. 한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닥나무의 닥.

닥이란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문자

를 기록하는 것이 종이이고, 그 중에서도 한글은 한자가 제적이니까.

닥을 소재로 활용하는 작가들이 없지는 않다. 대부분은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한지를 부어서 건조시킨 뒤 이탈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빠르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손 작가는 직조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화면에 전체적인 구성을 하고, 그 위에 반건조 상태의 한지를 얇게 포를 떠 일일이 붙이는 방식이다.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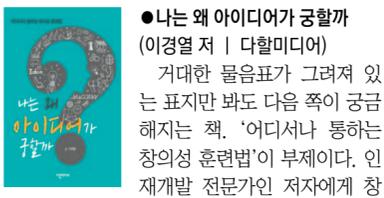
이런 식의 작업방식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손 작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닥의 섬유질이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모양과 느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작가의 작품들은 올해 세계적인 미술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5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팔라조 뱌보 전시장에 걸린다.

“2~3미터 가량 되는 대형작업 4점 정도가 전시된다. 참가하는 작가들마다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전 세계 작가들이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나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2년 전 36만 명이 다녀갔고, 올해엔 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베니스 비엔날레. 잃어버린 목판본 대신 닥을 입고 되살아난 훈민정음이 세계 미술 팬들의 눈과 마음을 온통 뒤흔들 어주었으면 좋겠다.

신간



●나는 왜 아이디어가 공할까 (이경영 저 | 다함미디어)

거대한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표지만 봐도 다음 쪽이 궁금해지는 책. ‘어디서나 통하는 창의성 훈련법’이 부제이다. 인재개발 전문가인 저자에게 창의성은 천재들만의 재능이라거나 고도의 두뇌 훈련을 받은 전문가 또는 특정산업 종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신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 정의한다. 심지어 “창의성은 더하기만 잘 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볼펜

과 전등을 더해 어두운 곳에서도 필기가 가능한 히트상품 반디펜이 나왔고, 팩스와 모뎀을 더하니 출력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 팩스모뎀이 개발됐다. 기계기술과 전자기술이 만나 ‘메카트로닉스’라는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탄생했다. 이 책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원리를 다양한 예화와 예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한자 조어로 아이디어 구현원리를 정리한 ‘창의성 구구단을 외자’의 팁만 주워도 책값이 아깝지 않다.

●산을 바라보다 (김병준 저 | 도서출판 선)

대한산악연맹이 파견한 77한국에베레스트 등반대(대장 김영도)가 1977년 9월 15일 오후 12시

50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전설이 된 고상돈 대원과 펠바 노르부 셰르파가 그 주인공이었다. 당시 한국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자랑스런 대원 중 한 명이었던 김병준의 산에 대한 인생철학이 담긴 산행 에세이가 출간됐다. “나이 70이 넘도록 산을 오를 때 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자는 “산을 오르는 것은 나에게 신앙의 경지”라 고백하고 있다. 평생을 산사람으로 살아온 저자의 감동적인 산 이야기를 담은 1부, 환갑이 넘어 떠난 트레킹을 기록한 2부 그리고 한국 등산의 발전사를 정리한 3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대한산악연맹 전무이사, 감사,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양형모 기자

에듀윌

NCS 기반 직무적성검사의 중요성

공기업 채용 대비 확실한 점검 'NCS 봉투 모의고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열기가 뜨겁다. 취업 포털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인원은 무려 2만3307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채용 계획 인원인 2만2876명에 비해서도 2%가량 늘어난 인원이다.

그렇다면 361곳의 공공기관 중 올해 가장 많은 채용을 계획한 곳은 어디일까? 바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다. 코레일은 올해만 새롭게 1855명을 채용하게 됐다. 코레일의 이러한 대규모 채용은 신규 노선 개통과 기존선 개량, 정년퇴직자 증가 등과 맞물려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 채용이 전에 없이 그 규모에 강세를 보이면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적성검사 및 면접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 취업시장 전반에서 보이는 탈스펙 채용 경향과 더불어 중복 합격으로 인한 기회 축소를 막기 위한 '합동 채용'까지 사실상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이외의 평가 요소가 줄

어지고 있다. 때문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NCS 기반의 직무적성 검사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에듀윌은 공기업 취업 관련 강의 구매 시 NCS 봉투 모의고사를 전원에게 무료로 증정 중이다. 봉투 모의고사란 수험생이 실제 필기시험에 앞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학습자료로 실전 감각 유지에 좋다. 배송기간은 7~10일 소요되며, 총 2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5 3 8 9 8 5 1 8 7 2 3 2 4 1 7 3 2 9 1 8 8 5 9 6 1 4 6

1 9 7 9 5 7 1 5 7 1 4 8 6 3 9 3 5 7 7 3 7 5 1 7 1 8 6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스도쿠정답

Grid of numbers representing the solution to the Sudoku puzzle.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2일(금)·23일(토)·24일(일)

Table with 10 rows and 2 columns. Each row contains a zodiac sign (e.g., 쥐, 소, 호랑이) and a horoscope for that day.